CONTENTS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6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인터뷰

9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22
충북 보은군 회남면 산수리 양선석 이장 인터뷰

13 대청호와 함께하는 양서·파충류 3

18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8

24 정책&이슈

28 네트워크 사업보고

36 대청호 뉴스&뉴스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vol.131

발행일 2021. 10. 5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표지이야기 : 노고산성 정상에서 대청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평범하게 대청호를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청호를 위해 뜻깊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청호 해설사 분들입니다. 지켜야 할 대청호의 소중함을 알기에 오늘도 산을 오르고 대청호 주변을 돌아보며 대청호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계십니다. 대청호가 궁금하시다면 대청호 해설사와 만나보세요~^^(관련 지면 18쪽)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간사

“절박한 환경위기의 시대에는 민관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인터뷰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아름다운 금강을 지키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정종선 청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9월 중순에 대전 유성구 구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청장 집무실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금강의 아들, 자연 속에서 자라다

정종선 청장은 금강과 아주 인연이 깊다. 정종선 청장의 고향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이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금강 및 자연과 함께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저는 금강과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살았던 곳은 청원군 옥산면이었어요. 특히 제가 살았던 곳에는 금강 지류인 병천천이 있었어요. 금강을 쭉 돌아보면 지류 중에 미호천이 있고, 거기에서 갈라지는 부근에 병천천이 있죠. 정말 깨끗한 물에서 자랐고 백사장도 많았고, 모래하천이다 보니 길을 갈 때는 산길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강물 타고 온 기억도 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연 속에서 자랐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물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물질적인 문명이나 도시적인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부족했을지언정 그래도 저는 온전한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것이 큰 행운이라 생각하고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의 아내의 고향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삼정동입니다. 제 아내는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몰민들의 아픔과 공감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곤 하는데 가끔 군산까지 종주를 합니다. 지금 시기에 물억새가 정말 아름다운데, 부여부터 시작해서 강경을 지나면 그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정말 자연이 좋습니다. 금강과 같이 자라왔기에 제 성장의 기초는 어떻게 보면 금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종선 청장 약력

행정고시(38회)
95.04 ~ 98.03 총무처, 환경공무원 교육원
98.03 ~ 05.12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등
05.12 ~ 07.02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07.02 ~ 16.06 주케냐공화국 대사관(09.08 ~ 12.08),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등
16.05 ~ 17.12 운영지원과장
17.12 ~ 18.01 환경융합정책관
18.01 ~ 19.01 자연보전정책관
19.02 ~ 19.12 교육훈련(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20.03 ~ 21.04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21.04 ~ 현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

산골짜기의 학창시절과 큰 변화의 계기 대학시절… 그리고 환경공무원의 길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도 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서 자라다 보니 중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복이었네요(웃음).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었고 중학교까지는 옥산에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는 청주에서 다녔었고, 대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었죠.

저에게 큰 변화를 준 시절은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를 배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결국 정치학의 출발은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절반 정도 읽고 나서 도저히 흥미가 생기지 않으면 정치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죠.

당시 교수님은 동양학에 꽤 깊이가 있으셨고, 주역부터 해서, 공자, 장자의 사상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죠. 그때 저는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 동양적인 사유체계와 자연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주 자연의 원리, 작게는 눈앞에 펼쳐진 자연에 관해 파고드니 그 공부가 재밌었고, 결국 정치 또한 철학이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제가 동양철학이나 주역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쪽 분야에서 논문을 쓸 정도의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환경공학은 사실 기능적이고 공학적으로 필요하니 공부를 했습니다만 큰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양철학은 자연과 맞닿아 있지요. 그렇다보니 자연과 환경에 대한 세계관이 보이고 당연히 환경 분야의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관 시절 국무총리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국장은 내가 총리실에서 계속 근무하길 바라고 권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환경 외 다른 분야의 업무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정중히 사양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중 으뜸은 환경영향평가

정종선 청장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이 있고 기억에 남는 일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라고 한다.

"새만금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는 개발 사업이 환경적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걸러내고 꼭 필요한 것만 진행해 환경성을 높여주는데 그 부분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예전에 30만 평 특정 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지적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보니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로 30만 평이라는 면적의 환경을 지킬 수 있었고, 만약 개발이 되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이나 마찰, 환경문제 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국가가 무조건 개발을 못 하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서 그에 따라 서비스도 제공할 의무도 있고, 이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정말 꼭 필요한 개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비용이 든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좀 더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아름답게 개발 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간 내에 녹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유심히 보며 고려합니다. 도시에서는 숲이며 나무이며 그런 자연이 정말 중요합니다. 녹지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0이라는 택지개발을 한다면 최하 25%~30%는 녹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개발 면적이 줄어드니까 난색을 표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굳건히 추진해나갔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경관도 볼 수 있고, 경치도 훨씬 아름답기 때문에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관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학교를 지을 때 자연의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물론이고 학교도 아이들이 오랫동안 그 울타리에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적은 비용,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건물을 짓는데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최대한 자연의 요소를 고려하며 환경적인 미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넘게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소개 및 유역관리의 청사진

"저희는 환경부라는 본부가 있고, 크게 보면 강별로 해서 4대 유역청과 지방청이 있는데, 정책적인 큰 틀을 환경부에서 만든다면 저희 청의 업무는 집행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즉 현장의 접점에 있는 것이죠. 본부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면 저희 청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현장 업무, 직접 실행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거기에 맞는 조직 편제가 되어있고, 그에 맞는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집행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환경평가과, 환경관리과, 대기관련과, 자연환경과, 수질관련과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분야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선 청장은 금강유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 금강유역환경청은 지역과 접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

천리포수목원 방문

주민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금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충남북, 대전, 세종이거든요. 지역 특성이 수도권과 가깝고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압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입지 제한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산업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흔히 산업 시설하면 울산 같은 지역을 생각하지만 최근 들어서 충청권에도 산업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이 들어오면 폐수처리 시설도 덩달아 들어오는데, 폐수처리 시설의 3분의 1이 저희 관할지역에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이 충청권 산업시설이라는 뜻이죠. 그 관리 감독이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역으로 처음 입지할 때 잘 선별하고 걸러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관할 지역에 들어온 시설들은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장관리 업무들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염행위 단속부터 시작해서 산업시설 관리까지 현장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시설이 늘어나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저탄소율을 중요시하는데 산업시설이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들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 국민들이 질 좋은 환경 서비스, 자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하기에 좋은 생태환경을 잘 구성해서 주민들이 최적으로 환경 및 자연 공간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토지 매수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들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토지 매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 정종선 청장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상수원 정책이라는 것이 규제를 근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류지역 사람들은 규제로 인한 피해의식이 있고, 또 규제한 만큼 과연 수질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 관리 협력

이 잘 개선이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계법(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처음 제정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 나온 정책이 물이용부담금입니다. 원래 환경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입니다. 대청호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어서 대청호가 오염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결국 하류 사람이고, 하류 사람들은 더 좋은 물을 먹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수질이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한 것이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수익자들이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비용을 좀 더 부담하고, 상류지역에 규제 상황만큼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계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법 초창기에 참여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던 것이 상수원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땅 값이 오르면서 애초에 생각했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매입실적이 저조한 문제,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 매입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옥천 안터지구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한 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면적의 토지를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 매수토지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토지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대상지구으로 정하여 환경농업을 하도록 하고 예산지원도 하는 것이 좋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덜 사용하는 환경농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지원을 지불제 형식으로 하면서 효과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마을이 매수된 토지의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니 정종선 청장 또한 매수된 토지의 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절박한 환경문제와 민관협력의 소중함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얼마 전 IPCC 6차 보고서를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에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5차 보고서 마지노선이 2050년이었는데 2040년으로 당겨졌어요. 이건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절박함이 적습니다. 차

세종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현장 시찰

라리 초 극단적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국민들은 물론이고 산업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속에 언제까지 지구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절박함을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정치권 및 국가에서도 더 고민하고, 산업계도 이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하루 빨리 절박함을 깨우쳐서, 모든 부분에 있어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 또한 이러한 동향에 적응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중대형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기회로 삼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단체와 함께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단체의 많은 분들과 교류해왔습니다. 성숙한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같이 자발적 참여가 중요해요. 그 고리가 바로 환경단체라고 생각하고, 비록 코로나로 간담회 등을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함께 다양한 사업도 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활동한지 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문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박함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주민, 환경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정종선 청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나누고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의 금강유역환경청 및 정종선 청장의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이장으로, 산수리 주민으로 행복 마을은 계속됩니다."

충북 보은군 회남면 산수리 양선석 이장 인터뷰

서대전 IC로 진입하여 판암 IC로 나와 세천 고개를 넘고 어부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다. 대청호 벚나무길이 반기고 고운 바람에 호반 윤슬들이 정겹게 춤을 춘다. 서둘러 뒹구는 가로수 잎새들이 가을 시작을 알린다. 잔잔한 음악과 약간의 설렘, 이번에 만날 이장님은 어떤 분일까? 한 사람의 삶과 마을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희망을 전한다.

산수리로 이어진 길로 들어섰다. 고불고불한 평지를 지나 살짝 오르막길인 듯하더니 이내 깎아지르는 비탈길을 만난다. 비탈길에서 차를 멈

출 수밖에 없다. 마을 집들이 대청호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앉아 있는 풍경에 취한다. 마을 회관을 지나 이장님 댁에서 양선석 이장님(73)을 만난다. 마당 주변과 뒤꼍으로 온갖 꽃나무가 즐비하고 일부 꽃은 만개하여 나비들이 속삭이며 꿀을 먹는다. 그런 풍경을 안고 이장님 마당의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아이들 모두 결혼하고 나서 갑작스런 투병 생활을 하게 됐어요. 위암 수술을 받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고향으로 오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고향 집이 그리웠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향 집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거의 폐가가 되다시피 했지만 좋은 결심을 했더니 잘 고쳐지더라고요. 다행히 아내도 동의하여 귀향했지요. 부모님을 추모하며 선대 산소도 돌보고 아내와 함께 하는 말년이 행복합니다."

양선석 이장님은 약 60년 동안 도시 생활을 접고 귀향을 결심했다. 대전에서 30세까지 살았고 서울로 올라가 40년을 지냈다. 고향에서 남은 생을

지내리라 결심하고 귀향을 했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롭기도 했다. 양 이장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 데다 너무나 낙후된 고향 모습을 보고 반드시 재건하리라 마음먹었다.

귀향한 후 4년 가량이 지나 마을 이장을 맡았다. 양 이장이 고향 마을에 들어오시기 전만 해도 도로나 환경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 차 한 대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 정도였지만, 군 지원을 받아 마을 안길을 모두 확장하고, 동네 분들과 힘을 모아 환경 개선에 집중하여 차근차근 행복 마을을 만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 및 직접 지원 사업비를 따오는 일이었다. 무엇이든 투명하게 마을 공동 사업에 투자하여 신뢰를 얻었다. 마을 주민들의 불협화음은 전무했다. 마을 안길을 넓히고 정비했다. 마을 숙원인 정자 세우기 사업도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한 행복 마을 1차. 2차 사업까지 선정돼 아름다운 산수리 마을로 변모해 갔다.

16가구 30여 명이 거주하는 산수리 발전을 위해 김 이장은 헌신하고 봉사했다. 대청호와 상반된 입장이 있고 어려움도 따랐으나 오직 아름다운 산수리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임무를 수행했다. 산수리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마을 주민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예비역 장성, 교육계 유명 인사 등 사회에 헌신하고 여생을 아름답게 보내려는 분들이 산수리에 합류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협력하고 있다.

산수리에는 농사에 전념하며 사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밭농사로 고추, 감자를 주로 생산하고 대추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네 가구 정도만 농임업에 종사하고, 연금 수령이나 자가경제력으로 살고 있다. 마을 원주민은 여섯 분 생존해 계시고, 최고령은 86세로 귀향, 귀촌하여 살고 있는 분들이 주를 이룬다. 전원 생활을 추구하는 마을 주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수리가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마을 회관 앞에서 산수리 마을 유래비를 만났다. 산수리는 식장산으로부터 고리산 줄기가 힘차게 내려온 골짜기다. 앞에는 금강이 구비쳐 반달형으로 흐르고 앞산에는 샘봉산 줄기가 내려와 큰 삼각산 봉우리 형제봉이 우뚝 서 마을을 지킨다. 좌우로 대청호 물이 마을 앞까지 비단 물결을 이루고 있어 산세가 수려한 마을이다. 산 정기를 받아 수많은 인재가 나왔으며 인심 좋고 예의 바른 마을이다. 지금은 십여 가구만 살고 있지만 후덕하고 장수하는 모범 마을로 우뚝 섰다.

산수리 역사는 임진왜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상인 산소가 있다. 예전에 산수리는 남원 양씨 집성촌이어서 양가가 아니면 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수몰 전에는 80호 정도에 300명 정도나 살던 마을이었지만 대청호가 생기고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지금의 산수리로 변모했다.

산수리는 2018년부터 대청호 사업에 참여 중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산수리 마을과 협력하여 환경 정화 활동을 주도하여 늘 고마운 기

관이다. 회남면에서는 분저리에서 시작하여 이곳 산수리가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 환경 운동을 진행하며 마을 환경이 무척 좋아졌다. 특히 봄에 꽃가루가 날려 불편을 주던 버드나무 제거 작업을 하면서 정이 들었다. 연중 활동으로 마을 친목도 다지고 환경 개선을 진행하여 좋은 협력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수리는 보은 네트워크 사업에도 함께한다. 마을 정화 운동 사업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산수리 만들기에 힘을 모은다. 산수리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하자고 하면 모두가 열심히 참여한다. 마을 환경을 가꾸고 환경 정화를 진행하면서 대청호 수질을 보호하는 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이장이자 주민으로서 숙원 사업이 있다. 바로 겨울철 고갯마루 통행의 어려움을 풀어 보자는 것이다.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면 마을이 고립되어 버리는 까닭이다. 군이나 도 사업 차원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도로에 전기 시설을 깔아서 자동화시켜 놓으면 되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다. 염수 분사식 도로나 미끄럼 방지 시설 구축, 제설 장비 지원 등 지금보다 자유롭게 겨울철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한다.

유서 깊은 고향 마을로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양 이장에게 산수리는 특별한 애정이 있다. 선대가 이루어놓은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고 강조한다. 후손들이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고 고맙기만 하다. 지금은 누구든 귀촌을 하고 싶어도 땅과 집이 없을 정도다.

인터뷰를 마치며 소망을 물었다.

"원주민들과 외지인들이 더욱 소통하면서 그저 재미있게 평생을 화합 소통하며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더불어 살면 바람이 없지요. 이장을 하면서 마을 회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시라고요. 저는 행정 기관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이장하는 동안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한 분도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요."

글 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10만 년 전 원시인과 함께한 논개구리

대청호를 지나온 물들은 보조댐에서 숨을 고른 후 종착역인 서해를 향해서 긴 항해를 계속합니다. 금강 옆에는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들이 봄의 향기와 여름의 녹음, 가을의 노오란 옷을 자랑하며 서 있습니다. 보조댐 바로 아래에서는 작은 하천이 만납니다. 바로 용호동의 용호천입니다.

용호천이 금강과 만나는 두물머리 위쪽의 강가에 10만 년 전의 우리의 조상, 원시인들이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변의 언덕에서 10만 년

하늘, 나무, 물이 아름다운 금강입니다

용호동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논과 밭과 하천이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한 불 땐 자리, 다양한 석기들이 무려 4,000여 점이나 발견되었습니다. 1년도, 10년도, 1,000년도 아닌 100,000년 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강가에 있는 것으로 봐서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냇가에서 목욕을 했겠지요. 그때 벌써 불을 사용하고 돌기구도 사용했으니 살아가는 모습이 약간은 상상이 됩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용호동 유적지가 나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발굴을 해서 여기서 나온 유물은 한남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시인들의 웃음소리가 귀전을 울리는 듯합니다. 용호동 유적지를 뒤로하고 하천을 따라 올라가면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논이 있고, 뒤에 밭이 있으며 더 멀리에는 산이 있습니다. 강가에 빠져 걸어 봅니다. 용호천을 따라 걷고 있노라면 강변에 온갖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야생화를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강가에는 비취색의 꽃잎을 가지고 노오란 암술과 수술이 달려 있는 달개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달개비는 언제 보아도 수줍은 소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옆에 노란 달맞이꽃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저도 여기 있으니 좀 봐 주세요”라고 손짓을 합니다. 벌과 제비나비들이 꿀을 모으기 위하여 분주히 날아 다닙니다.

비취색이 아름다운 달개비입니다

생태계의 보고, 무논입니다

무논에는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논을 갈고 물을 댑니다. 무논의 땅속과 물속에는 온갖 벌레들이 많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황로는 물 댄 논에 모여 먹이를 잡기에 바쁩니다. 논에 물을 대고 나면 논의 물이 유리거울처럼 보입니다. 거울에는 산과 구름과 바람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멋진 수채화를 그리기도 합니다. 논에 물을 댈 쯤, 이 시기를 기억하고 있는 개구리들이 논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중에서도 무논을 아주 좋아하여 이름 붙혀진 개구리 중의 개구리인 논개구리(참개구리)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벼가 자랄 때 쯤 논에는 온갖 풀이며

곤충, 새들의 천국이 됩니다. 벼와 개구리밥이 자라고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올챙이가 되어 작은 개구리가 됩니다. 벼가 익을 때 쯤 메뚜기가 나타나 볏잎을 갈아 먹습니다. 이때 논개구리는 메뚜기를 잡아먹지요. 논두렁이나 물 위에는 유혈목이(꽃뱀)가 개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황조롱이가 물가에서는 물총새가 개구리나 작은 뱀을 노립니다.

한국의 논 습지는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생태계이지요. 논 가운데 서서 풀과 동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적으로 생태계 공부가 되겠지요.

논개구리 수컷입니다

논개구리 암컷입니다

여름밤의 합창단입니다

이런 멋진 습지를 살리는 길은 농약 덜 쓰기, 제초제 덜 쓰기, 비료 덜 쓰기겠지요. 5월의 무논, 참개구리들은 논에 오자마자 수컷이 울기 시작합니다. “꾸루룩 쿠르르릉” 논두렁에 앉아서 가만히 개구리 소리를 들어 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소리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울고 있는 수컷에 다른 수컷이 다가가니 크고 강하게 소리를 냅니다. 암컷 개구리가 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를 냅니다. 개구리나 새의 세계에서도 역시 소리가 중요한가 봅니다. 노래를 잘해야 장가를 잘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용호천의 중간 중간에는 시멘트와 돌로 만든 보가 있습니다. 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물 고인 곳에 알을 낳아야 하는 개구리들은 이 보가 너무나 큰 장애물입니다. 이런 곳에 조금 더 생각하여 개구리나 물고기가 위로 올라 갈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용호천은 계족산에서 발원하여 여러 마을과 계곡을 지나서 금강으로 흘러갑니다. 여름이면 멱을 감고 겨울에는 물을 길러 먹었던 사람들, 자연과 항상 공존하는 그런 하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돌과 시멘트로 만든 보입니다

10만 년 전, 우리의 조상이 살았던 용호천과 금강, 그때도 논개구리는 같이 살았겠지요? 원시인들에게 논개구리의 안부를 계속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 참고문헌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 지성사 문광연

꼬리에 꼬리를 무는『풀 이야기』 지성사 유기억

글 **여규용** 6기 대청호 해설사

노고산성길

걸어야 보이는 풍경

정상에서 대청호를 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찬샘마을에 도착을 한다. 아침부터 태양은 이글거리고 바람은 조용히 숲으로 숨었는지 미동도 없다. 잠시 찬샘마을 체험장을 둘러본다.

한동안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어지럽혀져 있다. 이런 훌륭한 시설을 놀리고 있다고 아쉬운 생각을 하다가 문득 '코로나19'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몹쓸 유행병이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경고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길고 지루한 방역조치에 이제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마음 붙일 곳조차 없다. 마음 놓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은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른 아침인데도 마을은 너무나 조용하다. 인기척도 없고 개 짓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도 덩달아 외로움을 느낀다. 체험장 평상에 벌렁 누워 본다. 내어릴 적 고향 생각이 문득 난다. 인기척에 눈을 뜨니 동행할 지인들이 도착을 하였다. 벗어 놓았던 배낭을 메고 일행을 따라 나선다. 몇 안 되는 일행이라 조촐하여 가족 같은 맘으로 즐거운 걷기가 될 듯하다.

노고산성 안내판

없어져 버린 길을 찾는다

진 나무들로 있어야 할 길이 보이지를 않는다. 한참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앞장선 선배님의 안내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전진한다. 그렇게 한참 만에 길 같은 길을 만나고 조금 수월한 발걸음으로 오르기 시작을 한다.

마을 어귀에서 이정표를 찾아보니 많이 낡았다. 그만큼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쇠점고개' 가는 길로 걷기를 시작했다. 문득 고개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을 듯하여 알아보았으나 일행 중에는 아는 이가 없다. 낡은 이정표 만큼이나 무더운 날씨다. 조금 걸었을 뿐인데 벌써 등엔 땀이 흐른다. 가는 길옆에 나비 한 마리가 꽃을 찾는다. 이름은 '사향제비나비'란다. 철책 돌담위에는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다. 마치 오늘 내 발걸음처럼 말이다. 숲은 이렇게 소리 없이 생명이 꿈틀댄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다 보니 쇠점고개로 생각 되는 능선에 다다랐다. 있어야 할 길이 없다. 우거진 숲과 쓰러

요즘 한창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 문제다. 우리가 쉽게 생각 하는 그런 단계의 환경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좀더 깊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우리 세대를 지나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숲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나무 한그루가 8명의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할 산소를 만들어 낸다고 하니 우리가 숲을 가꾸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 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그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 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길을

쓰러저 버린 이정표

무너진 돌더미(어떤 연유인지 궁금하다)

재촉한다. 오르는 길은 더위 탓인지 연신 쉬어 가길 독촉한다.

한참을 걸어 작은 계곡으로 내려선다.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에 안내를 위하여 설치한 이정표가 쓰러져 있었다. 오랜 세월을 무심하게 방치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부식되어 무너지고 버려졌으니 보는 안타까움은 말로 형언 할 수가 없다. 그 옆으로 눈에 들어오는 돌무더기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진다. 근처에 농사를 짓는 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돌무더기라니 분명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 듯하여 사진을 남기고 길을 재촉한다. 이제 본격적인 산성을 향하여 오르는 길이다. '노고산성'. 그 역사적인 사실과 역할은 차치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이렇게 걸어 본다는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 시절 열강들의 세력다툼에 역할을 다했을 '노고산성'. 대청호를 중심으로 수없이 흩어져 있는 산성들 중에 하나지만 지리적인 특성과 역할을 생각해 보는 소중한 탐방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르는 길 8부 능선쯤에 '노고산성'이라는 표지석이 덩그러니 서 있다. 아마도 거기부터가 노고산성 구역이 아닐까 싶어 그리 생각은 하지만 정작 산성이 있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어 처음 찾는 사람들은 그곳이 산성인줄 알고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참을 오르니 드디어 성벽이 보인다. 돌로 쌓은 흔적이 조금이지만 남아있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반갑기 그지없다. 최근에 다시 복원한 것이라도 좋았다. 흔적을 더듬어 본다. 그 시절 치열했던 함성이 귓전에 들리는 듯하여 잠시 숙연해진다. 산성 정상에 서니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하게 다가온다. 언제부터인지 정상에는 구조물을

노고산성 정상에 서서

노고산성 표지석

노고산성의 흔적을 보며

세우고 거기에 종 하나를 달아 놓았다.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설치한 이유야 분명 있겠지만 말이다. 이런 저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머문다. 아득하게 펼쳐진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내가 지켜야 할 지역의 소중함을 알기에 우리도 오늘 이렇게 산을 오르고 대청호 주변을 배회하는 거다. 나 아니라도 되겠지 하는 마음 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자세가 아닐까 싶다.

요즘 '탄소배출 2050'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빠르게 시작하는 지차체도 있고 아직도 개념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갈팡질팡하는 지자체도 있다. 무엇이 우선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막연한 것이 사실 존재 한다.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과 시행방향은 지자체 마다 가지고 있는 지형과 기후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추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만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 듯하여 걱정스럽다. 탄소배출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하며 지속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제대로 설계하고 추진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겠다. 지금 각 지역에서 활동 하고 있는 환경 단체들도 보면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미래를 위한 환경 운동인지 잘 모를 만큼 어설프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의 활동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하는 환경 활동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활동은 그 깊이와 내용적인 부분에서 깊이가 다르기에 정말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방향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한다. 지금부터는 '찬샘정'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다. 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산길에서는 내리막길이 더 어렵고 조심을 해야 한다. 한참을 내려가니 '찬샘정'이 반갑게 맞아준다. 만들어 진지 꽤 오래 되었는지 주변의 숲이 우거져 있어 대청호를 조망 할 수가 없어 아쉽다. 우거진 나무를 정리하여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방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혹자는 다른 생각일 수도 있다. 우거진 숲을 왜 자르느냐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사람 심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하면 잘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려는 습성이 있어 찬샘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또 만들 것이다. 그것보다는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다. 이 부분은 완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리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한참을 찬샘정에서 쉬었다 바람도 좋고 날씨도 좋고 조촐하게 걷는 길도 좋은 날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임도를 걸어 찬샘 마을로 향하는 길을 재촉한다.

노고산상의 흔적을 보며

찬샘정의 휴식

길은 참 아름답다. 거기다 생각이 같고 같은 목적으로 함께하는 동료들이 길동무가 되어 주니 더욱 좋다.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찬샘정에서 찬샘마을로 가는 길은 포장된 길이라 조금은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깨를 펴고 가슴 깊이 맑은 공기를 들여 마신다.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충만해진다. 하루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우리는 말을 참 쉽게 한다. 그리고는 금방 잊는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하며 가까이 하려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무관심을 넘어 비방과 모함을 하기도 한다. 오늘 돌아본 길도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잘 만들고 다듬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어떤 모습인가? 길은 없어지고 이정표는 지워지고 빛이 바래서 알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왜 지속적이지 못한 것일까? 많은 의문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새긴 하루였다 생각된다. 지구 어느 한쪽 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이 힘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당장 그런 아픔 없다고 이렇게 무심해도 되는 건가? 학생들에게 물 환경 교육을 하면서 물의 소중함과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를 수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많이 부끄러웠었다. 교실을 떠나 잠시만 나가도 버려진 쓰레기와 버리는 사람을 수시로 만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한 환경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또 지켜 가려고 노력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지속해야 할 환경 교육이다.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스스로 약속을 한다.

드디어 찬샘마을에 도착을 했다. 참 아름답고 예쁜 마을 이름이다. '찬샘마을'.

예전에는 냉천골이라고 부르던 것을 최근 들어 찬샘마을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쁜 이름만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바래본다.

오늘 함께 걸어 준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한다. 다음에 또 걸어 볼 날을 기다리며 마친다.

글 **유진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수립, 어디까지 왔나요?

2018년 6월 12일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 물관련 분야에서는 최상위 법률이다.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법에 따라서,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으로 나누어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두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국가계획)을,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강유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계획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컨소시엄((사)한국물환경학회, (사)한국수자원학회, (사)한국농공학회, ㈜한국종합기술, 한국농어촌공사)으로 수행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2030년을 목표연도 삼아, 10억원의 예산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금강유역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모든 계획의 기준이 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금강유역계획)에 담을 내용을 만드는 과정이다.

금강유역계획에 담기는 내용은 1)금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바탕으로 2)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4)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6)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8)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 문화 창달, 9)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등 중요한 사항은 모두 망라되어 있다.

연구 용역은 지난 2월 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3차에 걸친 수계별(금강수계, 삽교천수계, 만경·동진강수계, 금강서해수계) 토론회와 8월 27일까지 모두 3차례의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어려운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반으로 갈수록, 유역 통합물관리 이념과 정신을 실행력을 갖춘 계획으로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 둘씩 정리되어가면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방안(안)에는 1)금강유역의 우리 강, 2)금강유역 현황 및 한계, 3)금강유역 여건 변화, 4)자연성 회복의 필요성, 5)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방향, 6)자연성 회복 추진원칙, 7)자연성 회복 비전 및 목표 설정, 8)자연성 회복 조사진단 및 관리지표 설정, 9)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추진전략, 10)금강유역 생태계 관리 및 자연성 회복 제시, 11)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수계별 중점사항, 12)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13)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은 맨 처음 연구 방향과 내용을 잡는 진단으로, 금강 유역은 중류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비점오염원 비중, 높은 하구 단절율을 가지고 있고, 중소형 구조물 및 대형 보 철거·개선 등을 토해 연속성을 회복하고, 도시지역 LID 및 축산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 확보를 하고자 하며, 금강 유역은 농업용수, 하천의 경관유지를 위해 물을 이용하고, 하천유량 부족, 수막재배 시설의 피해, 금강 수질 개선 지연 등 여러 물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역 내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수량, 수질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다방면의 물이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여, 유역내 확보 가능 수자원량, 용도별 수급 현황, 수질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간 성과 및 한계를 제시한 후,

중간보고회 1차

유역 구성원이 동의하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출발하였다.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도 계획수립 과정의 용역수행자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중심의 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투명하고 정보 및 소통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공공 유관조직 및 이해 관계자, 주민 등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와 결정의 절차에 기반한 유역계획의 수립 원칙을 세웠다. 그에 따라, 제1편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개요, 제2편 금강유역 물관리 현황, 제3편 금강유역 물관련 현안 및 전망, 제4편 금강유역 비전 및 목표, 제5편 금강유역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제6편 유역별 중점 현안 과제, 제7편 금강유역계획 이행 로드맵 및 이행평가(연구 수행중)등이 제시되었다.

지난 착수보고회를 회상해보면, ①금강유역 자연성 회복 구상 수립의 추진방향과 과제 제시에서 언급한 '금강 3개 보 처리 시나리오별 자연성 회복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3개 보 처리 방안 확정 전에 과업지시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보 처리 방안 확정여부에 따라 처리 방안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던 사항인데, 12월 연구용역 협상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처리 방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연구진이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3개 보 별로 보 처리를 위한 방법, 시기, 절차등을 제시하여 자연성 회복 구상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②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다른 강 유역보다 상세하고, 자연성 회복 구상 수립 내용을 용역 안에 포함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향후 10년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착수보고회 자료만 보면, 용역수행계획서 상의 수립 추진전략에 기본방향과 수행내용에 과업지시 내용이 모두 표현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고, 물산업 육성 분야도 기후변화등 영향으로 물이용은 유역주민의 생명과 생활 전반에 점점 중요한데, 자본의 수익성 논리에만 맡기기보다는 금강유역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도 종합계획에 담는 것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제시되어 있는데 반영이 부족하였으며, ③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는 금강유역과 수계별 주요 현안과 이슈들, 정책과 실행과제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계별, 광역과 기초 지자체 관할구역별, 상류와 하류별, 행정과 시민사회, 일반주민과 전문가등 다양한 유역의 이해와 요청사항이 협의되거나 때로는 갈등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종합계획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유역구성원이 상호 배려로 동의하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유역구성원이 협력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후 법정계획 부합성 검토와 갈등 조정, 정책과 계획 실행, 이행 평가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와 절차·지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요약해보면, 1)금강유역계획수립 연구보고서 내용·형식 및 물 관련 상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 추가 등 보완, 2)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은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유역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며, 3)금강유역 현황 및 분석된 전망과 제안된 정책과제와 연계성 고려, 4)국가 및 지자체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정량적인 지표에 대한 고민, 5)수계별 용수 분석결과를 주민들도 알기 쉽게 제시하고 금강유역 수계별 용수 수요에 따른 공급에 관한 추진전략 및 과제 보완, 6)금강하구 생태계 복원과 기수역 회복을 위한 닫힌 하구 연속성 확보 방안과 물 수요 대안들의 제시, 7)용담댐의 합리적 물 배분등 물이용의 합리성 구축에서, 합리적 물배분을 위한 원칙, 물 분쟁 조정절차, 물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수립, 최소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만 반복하고, 실제 내용이 되는 원칙, 절차, 수립 내용 미비 보완, 8)금강유역계획 이행 로드맵 및 이행평가 수립을 위한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각 추진과제에 대한 소요예산과 일정에 관한 내용 보완, 9)오염원, 물환경 등 2030년까지 예측·전망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근거와 자료에 대해서도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타 계획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인용에 따른 금강유역 또는 수계별 영역으로 치환, 가공 보완,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를 마친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보고서(안)'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과 전체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확정될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계획은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시 유역계획에 반영하면서 수정·보완·개선된다. 당장 내년부터는 금강유역의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할 14종 392개가 넘는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금강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 권한이 부여된 정부의 행정위원회로서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금강유역의 물관리 관련 모든 법정,행정계획의 최상위 기준이 되는 중대한 계획이자, 유역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질 향상도 좌우한다.

금강유역계획 수립이 잘되는 길은 유역별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등 민간의 실질적 참여에 있다. 모든 유역구성원이 상향식으로, 물환경, 물이용 등 통합물관리 전분야를 포괄하는 금강 통합물관리 비전, 목표 수립, 실천과제 및 성과지표 개발, 국가계획의 물관리의 미래상·핵심가치 및 기본방향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참여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금강유역의 특성과 물관리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강유역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구상하고, 통합물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유역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금강유역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역계획수립 과정마다 참여하고 잘 지켜보아야만 가능하다.

글 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회원단체 및 마을과 함께 활발한 활동 전개 중

2021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는 금산군친환경농업인협회가 주관 사무국이 되었다.

건강한 농작물 생산에 남다른 신념과 열정을 가진 권용보 대표님의 적극적인 활동 속에 금산네트워크 회원단체인 금산군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추풍천 유역 환경 정화활동을 중심으로 원골 유역 및 마달피 등 금강본류의 쓰레기 줍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단체인 정심회에서는 12년간 가시박 제거 작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금산군 지원 사업으로 복수면 유등천변 6km 가시박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가시박 제거 작업에 남다른 열정으로 임하는 정심회 회원들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의 사업으로 추풍천 유역 2.5km에 달하는 가시박 제거 작업을 진행하여 외래식물인 가시박의 생장을 막고 토종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사무국인 친환경농업인협회 주관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회원마을인 신정2리의 깻잎 재배 농가 중 6가구를 선정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회원마을을 중심으로 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9개 회원마을에서 천연비누 만들기를 하며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와 주민간의 상호협력에 우호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금산고등학교 생명과학 동아리 skype의 천내습지 생태연구팀도 천내습지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습지 내 쓰레기 줍기 및 습지 생물 연구활동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와 함께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글 이경호 대전네트워크 사무국장

대청호의 생명의 가치가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현실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 역시 힘든 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전네트워크는 나름의 소소한 성과를 이루어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구리 사다리 설치

이른 봄 경칩이 지나면 개구리들이 번식을 위해 이동해 갑니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세천(주원천) 상류에 개구리들이 갇혀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높은 보를 오르지 못해 갇혀 오르려는 산개구리와 두꺼비를 위해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개구리 사다리 설치로 끝나지 않고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영구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논 생물의 보고 둠벙조성

효평동과 주산동에 농민을 설득해 둠벙 3곳을 조성했습니다. 둠벙은 논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을 높여주며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3개의 둠벙에 새로운 생명들이 움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의 변화상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둠벙을 토대로 마을주민들의 습지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마을정화 활동 및 교육활동

대전네트워크 마을인 주산동에서 마을 정화활동과 교육활동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25분의 주민들이 함께하여 마을을 가꾸고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청호를 맑게 하는 길에 주민들이 함께 하길 약속해주셨습니다.

대청호 넷제로 프리마켓 대전네트워크

넷제로라고 알고 계사나요?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시겠네요. 프리마켓의 운영을 넷제로를 테마로 운영했습니다. 미호동공판장에서 진행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공판장에서 넷제로 프리마켓에 참여 해주셨습니다. 이제 프리마켓도 탄소중립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스테디셀러 대청호 보따리

매달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보따리는 매월 60개 내외가 매년 대청호 상류 농가에서 대전시민에게 전달중입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중입니다. 사무국인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원순환과정과 연계하여 보따리 배송 박스를 다회용가방으로 바꿨습니다. 쓰레기문제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둠벙모니터링과 습지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활동, 선진지 견학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글 **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며 일궈낸 성과들

무주네트워크에서 상반기에 진행하였던 사업을 소개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 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과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1. **회원마을가꾸기 사업**은 해마다 마을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았습니다. 의지가 높고 관심이 높은 회원마을 5곳을 선정하여 펼쳐진 올해 사업은 주민간담회와 주민 환경교육, 정화활동, EM흙공 던지기. 친환경제품만들기 등이 중점 진행되었고,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또한 높았습니다. 마을을 자주 방문하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매년 진행하다 보니 마을에서는 이제는 제 이름보다는 대청호 왔네! 라며 반갑게 불러주십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대청호라고 마을 분들에게 불리고 싶습니다. ^^

2. 작년부터 추진되었던 **소유역 거버넌스 사업** 은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가당천과 남대천이 선정이 되었으며 마을 대상으로 하천 중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고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마을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투기장소, 소각장소를 주민들과 말끔히 정리하고 예쁜 화단을 만듦으로써 쓰레기 투기 및 소각처리 방지를 막기 위해 주민들과 노력하였고, 농로에 버려진 농약빈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농약빈병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병행하면서 의식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금강마실길 걷기 사업**은 무주군 옛길 금강 변을 따라 무주관내 학생 및 회원단체회원들과 도랑 안에 외래풀 제거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간사단체 회원들과 금강 벼룻길 부근 도랑에 생활쓰레기 투기 등을 직접 수거하였고 주기적으로 오염된 금강 변을 회원들과 인근 학생들과 함께 관리하고 관찰하면서 하반기에는 다양한 생태손수건체험교육 및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와 간사단체 회원들과 친밀한 관계개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도 대청호 맑은물 만들기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글 **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마을과 함께 만들고 있는 모범사례

보은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소유역 거버넌스 사업은 회인천을 중심으로 회원마을 중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복숭아로 유명한 분저리마을의 깨끗한 마을만들기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분저리마을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한 오랜 회원마을로 이장님을 비롯해 마을주민이 대청호 수질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도 노력을 하는 마을입니다.

분저리 마을에는 마을 입구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었지만, 지저분한 쓰레기가 쌓이고 고양이가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찢어 악취와 미관상 안좋게 보여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0년도 소유역 거버넌스 사업으로 분저리 마을과 협의하여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정화활동 및 환경교육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마을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월 반상회를 통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는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로 인하여 조금씩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음식물은 물기를 제거하고 버리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불법쓰레기 배출금지(불법쓰레기 배출자는 단서를 찾아 다시 배출 시킴), 쓰레기 태우지 않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페트병 투명과 색깔 구분하여 찌그러트려 배출하기, 부탄가스 에프킬라 구멍 내서 배출하기, 박스접어 배출하기) 등, 쓰레기 집하장을 마을주민들이 돌아가며 관리하고, 연세 드신 분이 쓰레기 배출을 어려워할 경우에는 마을이장님과 마을주민들이 도와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깨끗한 분저리마을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없어 도로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곳이 많은데, 깨끗한 분저리마을의 쓰레기집하장으로 인하여 '보은사람들'이라는 지역신문에도 깨끗한 모범마을로 소개가 되면서, 마을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쓰레기 집하장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해 소유역 거버넌스 상반기 사업으로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수목식재(1회), 녹조의 주범인 버드나무 제거 작업(1회), 대청호 주변 불법쓰레기베출지역 현수막설치(15회), 우리지역 생태탐방 및 하천정화활동(3회), 대청호 주부회원 환경교육 및 친환경제품만들기(2회), 마을별 정화활동 및 주민환경교육(1회씩)등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으로는 마을별 정화활동 및 주민환경교육(1회씩), 우리지역 생태탐방 및 하천정화활동(1회), 대청호 주부회원 환경교육 및 친환경제품만들기(3회)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을정화활동 후 도시락을 드시면서도 열심히 사업에 동참하시는 회원마을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글 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하천감시단을 주축으로 “마을하천 가꾸기”

2021년도에는 행복한 회원마을 만들기, 마을하천 가꾸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20일에는 24개 지점에서 금강 상류의 다양한 생태계를 살펴보며 수질검사와 강 주변의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하천감시단들의 활동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평균나이 65세로 퇴직자, 사업가, 농부,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영동네트워크의 하천감시단은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늘 함께 동참해주시어 힘을 보태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대 악성 중 한 분인 난계 박연선생이 즐겨 찾았다는 옥계폭포가 있는 옥계리 마을 앞 강변에서 정화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곳이라 3년 전에도 정화활동을 하면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약속시간 전에 항상 먼저 집결하여 장화와 장갑으로 무장하고 능숙하게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빼곡히 자란 풀들 사이에 숨어 있는 쓰레기들까지도 열심히 찾아내십니다. 그러다 보면 금세 자루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바쁜 시간들을 내시어 함께해주시는 마음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역시나 하천감시단은 영동 네트워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들이십니다.

글 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찾아가는 환경교육”

옥천네트워크는 2021년 대청호상류지역의 소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친환경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안남천 중심에 있는 안남면 배바우도서관과 군북면 비야대정로에 위치한 향수뜰 돌봄 아이들에게 대청호의 다양한 생태자원 및 수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교육합니다. 마을과 지역이 아이를 키우는 입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미래세대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속의 비점오염 저감 및 환경 생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안남면 배바우도서관, 군북면 향수뜰 돌봄 각 3회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시에는 금강과 대청호에 대한 이야기와 멸종위기종의 특징을 알아보며 에코티셔츠 색칠하기를 진행했습니다. 군북면 대정분교는 하교 후 향수뜰 돌봄마을에 오는 아이들이 적은 농촌 학교입니다. 방과 후 돌봄마을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교육에 임했으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안남면 배바우도서관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있어 두 팀으로 나누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수달, 황조롱이, 황쏘가리 등이 그려진 티셔츠에 물감을 칠하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옷을 만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표정은 왜 그리도 사랑스러울까요?

2차시에는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을 알아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으로 게임과 OX 퀴즈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활 속 가까이에 아주 많은 유해 물질이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3차시에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알아보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쓰는 일회용품을 알아보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 및 재활용품 분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자주 접하지 못했던 환경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처음에는 ‘이게 뭘까?’라는 생소함으로 시작해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며 환경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강과 대청호, 우리고장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아이들과 더 많은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병천천 소유역 주민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활성화와 수질개선 활동

병천천 소유역 주민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활성화와 수질개선 활동 사업의 목표는 병천천에 인접한 마을, 축산단지, 주변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인근 농경지 비점오염원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량 유입되어 수질악화 및 부영양화 등으로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하천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병천천 소유역거버너스 구축을 통해 주민 실천활동 전개 및 물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병천천 유역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하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정책 제언을 통한 친환경 물 순환 도시의 조성이 목표입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소유역 주민 중심의 병천천 하천천감시단을 조직, 구성하고 소유역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적 관계 모색을 통한 추진 기반마련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역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적 관계 모색을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였습니다. 또한 병천천 및 소유역 주변 지역 정화활동을 통해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 프로그램(중급) 개발(발간) 보급 사업은 소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주민 등이 함께하는 지역 물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물을 보기 어려운 천안의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는 친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고 휴식(어메니티)과 체험·주민교육 등 친수문화 조성,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했지만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와 소통의 자리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협약, 실천활동 (정화활동),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실천활동(정화 활동)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에게 색다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지역주민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상반기 부족한 활동과 사업을 하반기에는 빈틈없이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하천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 **박광수**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장

대청호의 맑은 물을 기대합니다

청주네트워크는 청주에 있는 시민환경단체 및 문의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청호의 물환경개선을 위해 소유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마을하천가꾸기, 하천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개 마을이 주민참여하천관리활동에 결합하면서 하천관리활동을 진행하는 지역과 구간이 증가하였습니다.

4년째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수의 주민만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마을전체가 함께하며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차례 정기활동을 진행하지만 일상적으로 주민들스스로 감시, 정화활동을 진행하며 주민주도형 하천관리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 및 네트워크 소속 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마을하천가꾸기, 문의지역 생태문화탐방, 1년 활동을 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대청호맑은물 한마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라 상황이지만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대청호의 물환경개선과 단체와 마을간 교류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청호의 물환경개선과 유역공동체 형성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청호 옥천상류 녹조와 쓰레기 '이중고'

대청호 옥천상류지역 합수지점인 옥천지오리 서화천일대 가을녹조 심화와 각종쓰레기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12일 군과 마을주민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옥천 군북면 지오리 일대 대청호 가을녹조심화로 녹색물감을 풀어 놓은 듯 심각하다.

이곳은 금강물환경연구소가 공개하는 대청호 조류경보지점이 아니어서 정확한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대녹조는 가을장맛비로 상류에서 유입된 각종쓰레기와 뒤엉켜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다.

현재 이곳일대는 녹조확산을 막기 위한 수면포기기 가동과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있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이곳 인근주변 생태공원을 찾은 탐방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

대청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는 가을장마로 중단한 군북면 추소수역녹조 수거작업을 재개했다.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옥천 군북면 환평리, 추소리, 이평리, 지오리 등에서 녹조제거선박을 운영해 건져 올린 녹조 등은 모두 23여 톤에 달한다.

환경당국은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수온상승과 최근 대청호 유역에 간헐적으로 발생한 강우영향으로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대청호 하류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한다.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옥천추소수역에서 녹조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오리 일대 서화천 녹조제거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12일 기해 내린 대청호 문의수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도 지속되고 있다. 문의수역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발령기준인 1000개/㎖를 2주 연속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30일 기준 문의수역은 3568cells/㎖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일보】 2021. 9. 12 육종천 기자

옥천 대청호 주변 낚시꾼 북적… 코로나 방역수칙은 남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터마을 출입을 제한합니다." 충북 옥천의 안터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게시한 현수막 문구다. 가을 장맛비가 지속되면서 낚시꾼들이 충북 옥천의 대청호로 몰려들어 연안마을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칫 외지 낚시꾼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을까는 하는 우려에서다.

장맛비로 대청호 수위가 높아지면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 군북면 지오리 일대에 낚시꾼들이 몰린다. 이곳이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입소문이 낚시꾼들 사이에 돌면서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말이면 인근 대전과 청주 등지에서 수백여명이 찾아든다. 2일 오전 평일인데도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 주변은 낚시꾼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북적였다. 강태공들은 손맛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은 사실상 무시되고 있었다. 일정 거리를 두고 낚시를 해야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3~4명씩 몰려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여러 명이 텐트 안에서 소리를 내며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낚시는 제쳐 놓고 마치 야유회를 온 듯한 분위기였다.

대청호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여러 날을 취식하며 보내는 낚시꾼도 있다.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 집에 파는 사실상 전업 낚시꾼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계도 활동은커녕 현수막조차 대청호 진입로 1곳에만 설치돼 있었다.

대청호 인근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도 오래전부터 골칫거리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회용품부터 부탄가스통, 술병까지 생활 쓰레기가 대청호 주변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옥천군은 지난해부터 대청호 주변의 쓰레기투기, 교통체증,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통제구역 설정을 추진했다.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수'까지 둘 생각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대청호 주변 골칫거리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마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수생태계·수산자원 보호 취지의 낚시관리육성법을 쓰레기투기 억제,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 조례의 상위법으로 활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옥천 대청호 주변 곳곳은 뚜렷한 대책이 없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와 시민의식이 실종된 현장 그 자체였다.

대청호 연안 안터마을 한 주민(63)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겨울철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나서 대청호 빙어 낚시꾼들의 출입을 막기까지 했다"며 "최근 낚시꾼들이 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스1】 2021. 9. 2 장인수 기자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단속 책임공방 논란

대청호에 들어선 불법수상레저시설 단속권한을 놓고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년째 책임공방이다.

5일 군과 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옥천 군북면 석호리와 수북리, 소정리, 추소리 앞 대청호수역 합동단속을 펼쳤다.

특히 충북도, 옥천군, 옥천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며 6곳을 적발했다. 이때 단속된 불법계류대를 8월 28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까지 계류대를 철거하지 않은 채 버젓이 수상레저를 즐기는 것이 목격되면서 불법근절 의지를 의심케 했다. 수자원공사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일 3곳에 대해 2차 계고와 고발조치 계획알림공문을 발송했다. 1곳은 원상 복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청호불법수상레저시설 단속권한 등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군 담당관계자는 "하천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며 "수상레저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권한은 댐 수탁관리자에게 있다. 법령위반자의 처분권한도 댐 수탁관리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환경부에 질의한 계류장 등 허가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의 단속, 계고, 행정대집행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인지 또는 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 있는 지에 대한 회신을 토대로 한 주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 대청지사 해석은 다르다.

수자원공사 대청지사 관계자는 "충청북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댐 구역내에서 선박운항 행위허가, 수상레저사업 등 물놀이 행위 허가, 행정대집행 등의 처분사항은 시군에 재위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법령위반자에 대해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단속, 계고, 대집행을 주관해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활동 이외의 불법시설물 단속, 원상회복명령, 변 상금징수는 수자원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청호연안마을 주민들은 "단속권한 책임공방 속에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불법수상레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일보】 2021. 9. 5 육종천 기자

대청호가 품어온 수몰민 삶의 희로애락

KBS1은 대청호의 특별함과 의미를 전달하는 UHD 다큐멘터리 '대청호'를 18일 오전 10시30분과 19일 오전 10시10분 2회에 걸쳐 방송한다.

대청댐은 197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5년에 걸쳐 완공했다.

대청댐으로 청주와 천안, 세종, 공주 등 충남·북, 그리고 전북 일부에까지 식수와 공업용수 등을 연간 1300만t씩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금강 중·하류권의 홍수조절도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대청댐으로 인해 가슴 아픈 이들이 있다. 댐과 함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수몰민들이다.

대청댐 완공 40년, 물속에 잠긴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호수는 어떤 의미일까. 녹록지 않은 삶을 일상으로 여기며 물길을 건너온 이들의 겨울, 봄, 여름, 가을, 사계절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익숙함 뒤에 가려진 삶의 진정 소중한 가치를 찾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은밀한 장소, 청남대.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였지만,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생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된 그곳의 비밀스러운 야생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부 '그대 있음에'에서는 대청호를 제2의 고향이라 여기며 호수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몰민들의 사계절 이야기를 보여준다.

2부 '비밀의 정원'에서는 2003년 민간에 개방된 청남대 속 생명의 이야기를 고품격 UHD 영상으로 담아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대청호의 비경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세계일보】 2021. 9. 16 이복진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K-water

K-water 대청댐지사 대청호 SNS 사진공모전 개최

K-water 대청댐지사는 대청호 생태문화가치 홍보를 위해 대청호를 주제로 'SNS 대청호를 담다'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눈부신 자연) 대청호풍경, 생태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 (함께한 사람) 대청호를 배경으로 가족, 친구 등 인물들의 일상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사진 총 2개 부문을 대상으로 열리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작품공모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한국수자원공사 홈 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모집요강을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작은 12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홈 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청주시장상, 옥천군수상, 보은군수상, 대덕구청장상, 동구청장상, 대청 댐 지사장상 12점과 입선 30점에 대해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박도선 대청댐지사장은 "대청호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재조명하고 즐거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멋진 사진들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백제문화제 위한 공주보 담수 강행 규탄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9월 23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와 충남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기간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고 물을 가두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환경부는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공주보 관리수위 회복을 건의한 공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9년 10월 7일 개방 이후 약 2년만에 다시 공주보 수문을 닫았다"며 "공주보 수문을 조작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 건강성이 악화하며,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 교란 식물 종자가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주시는 2018년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2019 백제문화제는 수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난 2019년과 마찬가지로 행사 개최를 한 달 앞둔 8월 말, 유등 설치와 안정성 문제로 담수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또다시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금강수계 보민관협의체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담수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공주보 담수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주시는 보 처리방안 이행에 따른 금강 자연성 회복에 걸맞는 백제문화제를 계획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았고 환경부는 보 개방을 이유로 또다시 공주시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는 공주시와 환경부를 규탄하고 '공주보 담수 즉각 철회, 공주보 수문 즉시 개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오전 10시 30분 공주시청에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옥천군

옥천군, 수산종자 방류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큰 힘

옥천군이 내수면의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매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추진해 어민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군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소득에게 보탬이 되고자 치어방류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1천500만 원 증액한 1억7천3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 4월 군북면 소정리에 뱀장어 2만6천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7월 쏘가리 1만6천마리, 8월 토종붕어 20만마리 방류를 방류했다.

9월 1일에는 군북면 소정리 소정·막지선착장에서 수산물안전성센터로부터 전염병검사를 거친 전장 4.0cm 이상의 우량한 동자개 6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어업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오는 7일 토종붕어를 올해 마지막으로 방류할 예정이며,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풍부한 내수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로 지정해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전국유일의 도심 속 습지인 대전 갑천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전시가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과 함께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월 14일 성명을 내고 "'갑천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시민과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월평공원과 이어진 '갑천자연하천구간'은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대전의 허파라 불린다.

특히, 이 지역에는 수달, 큰고니, 미호종개,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쥐방울덩굴, 쌍꼬리부전나비, 봄처녀나비, 큰주홍부전나비, 낙지다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산림청지정 희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지정종 등 80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추진하면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했고, 이듬해 2012년 대전시는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서구 정림동, 월평동,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7km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은 환경부에 신청했다.

이후 2013년 환경부와 국가습지사업센터, 대전시,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참여한 민·관공동조사단이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습지 및 생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은 육상, 습지,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생물종 다양성이 높아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하천관리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제외,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 하천법과 습지보호법의 중복·상충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협의의견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무산됐다.

그 이후 8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이 개정된 것. 습지의 정의에 제외되어 있던 하천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갑천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지정의 걸림돌이 사라졌고, 개정내용에는 하천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난 방지 위해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유지 및 육역화 방지,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사항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갑천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과거에는 행정, 기관, 환경단체가 민관협치로 추진했다면 이제는 대전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가 '장록습지'를 시민숙의, 공론화를 통해 국가습지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장록습지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시의회, 대전시에 '갑천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 지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전시민과 함께 '갑천자연하천구간'이 도심 속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환경적 가치, 시민여가 및 휴식의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국가습지로서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또 "갑천자연하천구간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육상과 하천 생태계가 만나 형성된 습지생태계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에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나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반드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국가습지로의 지정은 대전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으며 대전시민의 중요한 '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민이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대전시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대전시는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갑천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위례마을살이,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